

# 중국어 이합사의 X什么Y와 XY什么 형식 고찰\*

맹유\*\* · 김영희\*\*\* · 이미경\*\*\*\*

## <目次>

I. 서론	IV. 논의
II. 선행연구	1. 통사적 특징
III. 분석	2. 담화적 특징
1. 연구 범위 및 대상 선정	3. 화용적 특징
2. 설문조사	V. 결론

## I. 서론

이합사(离合词)는 현대중국어의 특별한 언어 현상으로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음 예를 보자.

- (1) 你还有我, 担什么心呢!<sup>1)</sup>
- (2) 好了, 我知道你担心什么。

担心은 이합사(《现代汉语词典(第七版)》:2016)로, 의문사 什么가 있을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문후속세대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석사생 : 제1저자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중국어교육전공 석사생 : 제2저자  
 \*\*\*\*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글로벌언어문화학부(중국어중국어학)부교수 : 교신저자  
 1) 논문에서 나온 예문은 별다른 표기가 없으면 모두 베이징어언어대학교 말뭉치(BCC)에서 추출한 것이다.

경우 예(1)처럼 ‘担什么心’이 된다. 하지만 예(2)와 같은 ‘担心什么’의 형식도 발견할 수 있다. ‘担什么心’는 동빈식(動賓式) 이합사의 전형적인 삽입 방식이고, ‘担心什么’는 일반적인 이합사의 삽입형식과 달라 일반적으로 오류 형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王亚丽(2018)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担什么心’과 ‘担心什么’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밝힌 바가 있다. 그런데 위의 논문에서는 ‘担心’이라는 1개의 이합사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제한적인 연구이었고, ‘担心’과 같은 용법을 가진 다른 이합사(X什么Y, XY什么 이 두 가지 형식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합사)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찰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합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 이합사 뒤에 목적어가 위치하는 형식에 관한 것을 고찰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이합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을 동시에 갖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X什么Y’와 ‘XY什么’가 공존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통사, 담화, 화용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이합사는 현대 표준중국어 어휘 중 특별한 형식으로 일찍이 1950년대부터 많은 학자가 주목해왔다. 이합사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1970년대와 1980년대~지금까지 2단계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은 중국어 자체(本体)에 대한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이하 중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 1. 이합사 연구의 2단계

刘萍(2012), 崔玲玲(2019)은 이합사 연구를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었다.

- 1) 1단계: 1950~1970년대 이합사 개념의 제기. 王力(1944:27)는 ‘告状’이나 ‘打仗’과 같은 동빈(动宾) 조합의 구는 그 역할이 동사와 똑같다고 하며 이합사 현상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였다. 林汉达(1953)도 이합사 현상에 관심을 기울였고, 공식적으로 ‘이합사’라는 개념은 陆志韦(1957:79)가 최초로 제기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자들이 주로 이합사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 2) 2단계: 1980년대~현재까지 이합사 다각도의 심층적 연구. 이 시기에는 이합사에 대한 정성(定性)분석, 구조 분석, 중국어 교육, 중국어 정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李清华(1983), 史有为(1983), 赵金铭(1984) 등은 이합사 연구의 기초를 다졌고, 柯彼德(1990), 李大忠(1996), 赵淑华·张宝林(1996) 등은 이합사의 귀속 문제에 대해 재조명하였으며, 杨庆蕙(1995), 饶勤(1997), 吕文华(1999), 杨园林(2018) 등은 중국어 교육에 관해 연구하였고, 王海峰·李生·赵铁军(1999), 俞士汶·朱学峰(2019) 등은 이합사와 정보 처리의 인터페이스를 연구하였다.

## 2. 이합사 자체(本体) 연구

李春玲(2008), 刘萍(2012), 张燕(2014)은 이합사를 정성분석, 유형 및 확장 형식, 화용 등 3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 1) 이합사의 정성분석

중국어 이합사가 단어인지, 구인지, 아니면 단어와 구의 중간 상태인지는 어법학계 쟁점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요약하면 단어 설, 구 설, 이합사 설, 중간단계 설 등 4가지 설로 나눌 수 있다.

2) 이합사의 유형 및 확장 형식

이합사의 유형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로 다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张宝敏(1981), 朱坤林(2006) 등: 동빈형(动宾型), 동보형(动补型)
- (2) 段业辉(1994) 등: 동빈형(动宾型), 연합형(联合型), 수식형(偏正型)
- (3) 谢耀基(2001) 등: 동빈형(动宾型), 동보형(动补型), 주술형(主谓型), 연합형(联合型), 수식형(偏正型)
- (4) 刘顺(1999) 등: 동빈형(动宾型), 동보형(动补型), 주술형(主谓型)
- (5) 王素梅(1999), 曹保平·冯桂华(2003) 등: 동빈형(动宾型), 동보형(动补型), 주술형(主谓型), 연합형(联合型)
- (6) 付士勇(2001) 등: 동빈형(动宾型), 보충형(补充型), 부가형(附加型)

이합사의 확장 형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빈형에 집중되어 있다. 饶勤(1997)은 이합사의 이합 형식을 V+了/过+O, V+着+O, V+不/没+O, V+补(单)+了+O, V+不/没+补(双音节)+O, V+定+O, V+补+了+定1+定2+O, VO+SV, VO 바뀔 등 9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밖에 王素梅(1999), 付士勇(2001)등은 동빈형 이합사의 동태조사 ‘了’, ‘着’, ‘过’의 삽입, 보어의 삽입, 목적어의 위치 이동 등에 관해 설명하였다.

3) 이합사의 화용

饶勤(1997)는 이합사의 화용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귀결했다. 1) 이합사의 동사 형태소가 사람과 관련될 때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확장 형식으로 사용한다. 2) 화자가 불만, 무시 혹은 부정적인 말투를 표현할 때는 확장 형식으로 사용한다. 3) 알고 싶어 안달하거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게 할 때는 대개 확장 형식으로 사용한다. 丁勇(2002)에 의하면 VO형 이합사의 확장 형식은 다음 6가지로 나타난다. 1) 감정과 태도(정태)를 나타낸다. 2) 시제를 나타낸다. 3) 수량, 동량, 시량을 나타낸다. 4) 동작의 결과와 진행을 나타낸다. 5) 인칭과 지칭을 나타낸다. 6) ‘发高烧’, ‘帮大

忙' 등과 같이 목적어를 묘사한다.

이처럼 이합사의 화용 가치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합사의 화용 가치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이합사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중국어 교육의 이합사 연구

#### 1) 이합사 교육

1980년대부터 많은 학자가 이합사를 중국어 교육 차원에서 연구해왔다. 李清华(1983)는 이합사의 두 성분은 하나의 특정한 의미로 굳어져 단일개념을 나타내고 확장하지 않을 때 단어의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이들을 특별한 단어, 확장할 수 있는 단어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饶勤(1997)은 중·고급 수준 유학생들의 이합사 사용 상황을 조사하여 이합사의 확장 형식, 어법적 특징, 화용 등을 설명하였다. 刘春梅(2004)는 유학생들에게 나타난 이합사 오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교과서에서 이합사를 회피하는 것을 어휘표 처리, 어휘의 배합과 확장, 추후 관련 내용 증가, 이합사에 관한 문법의 적절한 도입 등, 교재 편찬을 통한 이합사 교육의 개선 구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2) 유학생의 이합사 사용 오류

유학생의 이합사 사용 오류에 관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다. 王瑞敏(2005)은 제2언어 학습자가 이합사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오류 현상을 분석하여 유학생이 이합사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를 분류하고, 이러한 오류 및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任雪梅(1999), 高思欣(2002), 陈玮(2006) 등도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 유학생 나라별도 이합사 사용 오류에 대한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중국어 이합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의 차이점을 인지하고 비교 연구하는 논문은 王亚丽(2018)

밖에 없었다.

#### 4. ‘X什么Y’와 ‘XY什么’의 비교 연구

王亚丽(2018)는 동빈형 이합사 ‘担心’을 예로 ‘V什么O’와 ‘VO什么’가 통사, 담화, 화용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했다. 통사에 있어서 ‘担什么心’과 ‘担心什么’는 주로 의문문에 분포하며 문장의 술어 역할을 한다. ‘担什么心’은 주로 부정적인 어투 등을 나타내고, ‘担心什么’는 의문문에서 주로 부정적인 어투 등을 나타내고, 때로는 의문도 나타내며, 평서문에서는 주로 사실을 진술한다. 그리고 ‘担什么心’과 ‘担心什么’는 모두 ‘还’, ‘又’, ‘不用’, ‘不必’, ‘在’ 등 부사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담화에 있어서 ‘担什么心’과 ‘担心什么’는 모두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고, 앞뒤 문장을 잘 연결하고, 조응하는 기능이 있다. 또 이 두 형식은 문장 끝 조사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고, 감정의 풍부함 정도의 차이도 나타난다. 그러나 王亚丽(2018)는 단지 ‘担心’이라는 1개의 이합사만 제한적으로 연구하였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X什么Y’과 ‘XY什么’이 두 형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합사 24개를 찾아내었고, BCC 말뭉치에서 24개 이합사가 있는 예문을 전수 조사를 하여 ‘X什么Y’와 ‘XY什么’가 공존할 때 통사, 담화, 화용 등의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 Ⅲ. 분석

#### 1. 연구 범위 및 대상 선정

우리는 중국어 이합사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 1) 《现代汉语离合词用法词典》(杨庆惠:1995)(이하 《用法》), 2)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孔

子学院总部·国家汉办:2008)(이하 《大纲》), 3) 《边听边记HSK离合词》(高永安:2009)(이하 《听记》), 4) 《汉语常用离合词用法词典》(周上之:2011)(이하 《常用》), 5) 《现代汉语离合词学习词典》(王海峰:2013)(이하 《词典》), 6)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中国教育部中外語言交流中心:2021)(이하 《标准》) 총 6권에 수록된 이합사를 전수 조사하였고, BCC를 통해 ‘X什么Y’와 ‘XY什么’이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이합사 24개를 찾았다.

〈표 1〉 X什么Y & XY什么 형식이 공존하는 이합사 분포

이합사	《用法》	《大纲》	《听记》	《常用》	《学习》	《标准》
수	1,738	195	188	268	210	549
두 유형 공존 수	19	16	7	10	13	18
두 유형 공존 비율	1.1%	8.2%	3.7%	3.7%	6.2%	3.3%
두 유형 공존 예시	帮忙 保密 操心 吵架 吃惊 担心 道歉 多嘴 发誓 放心 害怕 害羞 较真 辟谣 起哄 伤心 生气 效劳 着急	帮忙 保密 操心 吵架 吃惊 担心 道歉 发誓 放心 害怕 害羞 起哄 伤心 生气 着急 表态	吵架 担心 道歉 发誓 害羞 生气 着急	帮忙 保密 操心 吵架 吃惊 担心 发誓 害羞 伤心 生气	帮忙 保密 操心 吵架 吃惊 担心 放心 害羞 起哄 伤心 生气 投资 着急	帮忙 保密 操心 吵架 吃惊 担心 道歉 发誓 放心 害怕 害羞 伤心 生气 着急 表态 逞强 倒霉 害臊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X什么Y’와 ‘XY什么’이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이합사가 6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1.1%, 많게는 8.2%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어 교육 전문서인 《大纲》과 《标准》의 이합사 195개, 549개 중, ‘X什么Y’와 ‘XY什么’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 이합사가 각각 8.2%(16개), 3.3%(18개)를 차지하고 있어서 ‘X什么Y’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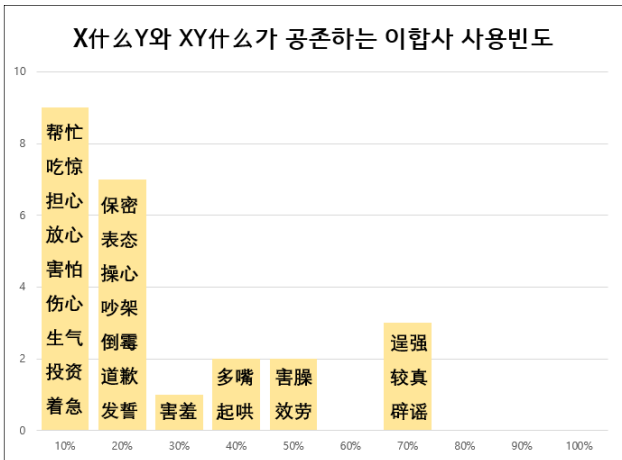
‘XY什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면 중국어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X什么Y & XY什么 공존한 이합사 출현 양상

순	이합사	《用法》	《大纲》	《听记》	《常用》	《学习》	《标准》	합
1	帮忙	+	+	-	+	+	+	5
2	保密	+	+	-	+	+	+	5
3	表态	-	+	-	-	-	+	2
4	操心	+	+	-	+	+	+	5
5	吵架	+	+	+	+	+	+	6
6	逞强	-	-	-	-	-	+	1
7	吃惊	+	+	-	+	+	+	5
8	担心	+	+	+	+	+	+	6
9	倒霉	-	-	-	-	-	+	1
10	道歉	+	+	+	-	-	+	4
11	多嘴	+	-	-	-	-	-	1
12	发誓	+	+	+	+	-	+	5
13	放心	+	+	-	-	+	+	4
14	害怕	+	+	-	-	-	+	3
15	害臊	-	-	-	-	-	+	1
16	害羞	+	+	+	+	+	+	6
17	较真	+	-	-	-	-	-	1
18	辟谣	+	-	-	-	-	-	1
19	起哄	+	+	-	-	+	-	3
20	伤心	+	+	-	+	+	+	5
21	生气	+	+	+	+	+	+	6
22	投资	-	-	-	-	+	-	1
23	效劳	+	-	-	-	-	-	1
24	着急	+	+	+	-	+	+	5
		19	16	7	10	13	18	83

〈표 2〉에 의하면, ‘X什么Y’와 ‘XY什么’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한 24개 이합사는 ‘吵架’, ‘担心’, ‘害羞’, ‘生气’ 등은 6권에 모두 출현하였고, ‘帮忙’, ‘保密’, ‘操心’, ‘吃惊’, ‘发誓’, ‘伤心’, ‘着急’ 등은 5권에 출현하였다.

그렇다면 ‘X什么Y’와 ‘XY什么’가 공존하는 24개 이합사는 실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现代汉语常用词表(草案)》(《现代汉语常用词表》课题组:2008(이하 《常用词表》))를 통해 24개 이합사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1〉 ‘X什么Y’와 ‘XY什么’ 유형 공존 이합사 사용 빈도별 분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常用词表》에 수록된 56,008개 단어 중 24개 이합사는 ‘逞强’, ‘较真’, ‘辟谣’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21개가 모두 상위 50% 안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상위 20% 안에 무려 16개(帮忙, 吃惊, 担心, 放心, 害怕, 伤心, 生气, 投资, 着急, 保密, 表态, 操心, 吵架, 倒霉, 道歉, 发誓)가 있다. 이는 24개 이합사들을 중국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이처럼 이 이합사들은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X什么Y’와 ‘XY什么’가 함께 출현하는 형식도 사용되

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표 3〉에 의하면,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공존하는 이합사가 있는 문장은 총 2,131개인데, 그중 ‘X什么Y’의 문장은 860개로 41.3%를 차지하였고, ‘XY什么’의 문장은 1,271개로 58.7%를 차지하였다. 전체적 수치로 보면, ‘X什么Y’ 형식의 문장이 ‘XY什么’의 경우보다 적다.

〈표 3〉 ‘X什么Y’와 ‘XY什么’ 유형 공존 이합사가 있는 문장 수<sup>2)</sup>

순	이합사		X什么Y	XY什么	합	비고
1	帮忙	수	228	5	233	
		%	97.9	2.1	100.0	
2	保密	수	2	2	4	제외
		%	50.0	50.0	100.0	
3	表态	수	7	2	9	제외
		%	77.8	22.2	100.0	
4	操心	수	98	9	107	
		%	91.6	8.4	100.0	
5	吵架	수	9	2	11	제외
		%	81.8	18.2	100.0	
6	逞强	수	37	7	44	
		%	84.1	15.9	100.0	
7	吃惊	수	1	3	4	제외
		%	25.0	75.0	100.0	
8	担心	수	60	705	765	
		%	7.8	92.2	100.0	
9	倒霉	수	4	1	5	제외
		%	80.0	20.0	100.0	
10	道歉	수	49	8	57	
		%	86.0	14.0	100.0	

2) 2022년 4월 26일 베이징어언대학교(北京语言大学)의 말뭉치(BCC)에서 조사하였다.

순	이합사		X什么Y	XY什么	합	비고
11	多嘴	수	11	5	16	제외
		%	68.8	31.3	100.0	
12	发誓	수	9	1	10	제외
		%	90.0	10.0	100.0	
13	放心	수	4	23	27	
		%	14.3	82.1	100.0	
14	害怕	수	6	378	384	
		%	1.6	98.4	100.0	
15	害臊	수	11	1	12	제외
		%	91.7	8.3	100.0	
16	害羞	수	13	16	29	
		%	44.8	55.2	100.0	
17	较真	수	3	1	4	제외
		%	75.0	25.0	100.0	
18	辟谣	수	1	1	2	제외
		%	50.0	50.0	100.0	
19	起哄	수	30	3	33	
		%	90.9	9.1	100.0	
20	伤心	수	7	30	37	
		%	18.9	81.1	100.0	
21	生气	수	181	21	202	
		%	89.6	10.4	100.0	
22	投资	수	1	20	21	
		%	4.8	95.2	100.0	
23	效劳	수	4	1	5	제외
		%	80.0	20.0	100.0	
24	着急	수	84	26	110	
		%	76.4	23.0	100.0	
합계			860	1,271	2,131	12개 단어 제외
			41.3	58.7	100.0	

24개 이합사 중 예문 수가 20개가 안 되는 11개 이합사(保密, 表态, 吵架, 吃惊, 倒霉, 多嘴, 发誓, 害臊, 较真, 辟谣, 效劳)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이합사로 표기되어있지 않은 ‘投资’(명, 동)도 제외한 후, ‘帮忙’, ‘操心’, ‘逞强’, ‘担心’, ‘道歉’, ‘放心’, ‘害怕’, ‘害羞’, ‘起哄’, ‘伤心’, ‘生气’, ‘着急’ 12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더 자세하게 분석하였다.<sup>3)</sup> 주목할 만한 것은 12개 이합사 중, ‘帮忙’, ‘操心’, ‘逞强’, ‘道歉’, ‘起哄’, ‘生气’, ‘着急’ 등 7개 이합사의 ‘X什么Y’ 문장 수가 ‘XY什么’ 문장 수보다 현저히 많고, 반대로 ‘担心’, ‘放心’, ‘害怕’, ‘害羞’, ‘伤心’ 등 5개 이합사의 ‘XY什么’ 문장 수는 ‘X什么Y’보다 확연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실제 사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 2. 설문조사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공존하는 이합사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문조사<sup>4)</sup>를 통해 살펴보았다.

말뭉치(BCC) 예문을 토대로, <표 4>처럼 12개 이합사를 이용하여 ‘X什么Y’와 ‘XY什么’ 두 가지 유형의 대화문을 각각 2개씩 모두 24개를 만들었고, 밑줄 친 부분에 어떤 유형이 더 적절한지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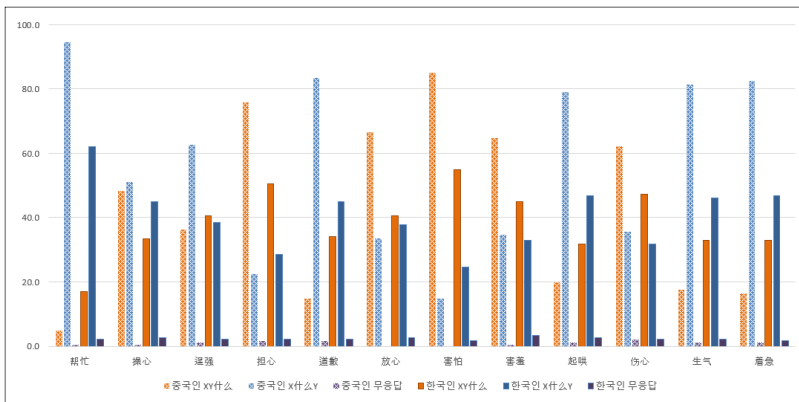
- 
- 3) 분석대상을 예문 수가 적어서 분석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예문 20개 미만인 이합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4) 설문조사 전문 프로그램인 서베이몽키(SurveyMonkey)를 통해 2022년 6월 1일에서 10일까지 열흘 동안 중국인 91명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74명에게 <표 4>의 대화문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 설문조사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의 대화문

1	1-1	帮忙	A: 谢谢您。
	1-2		B: 我也没~~~~~, 不用谢我了。 A: 需不需要我帮忙? B: 帮忙? ~~~~~? 没必要了。我已经忙完了。
2	2-1	操心	A: 生女儿就不用买房子了。 B: 生女儿就是这个好处, 不必~~~~~。
	2-2		A: 奶奶总是笑呵呵的, 她就没什么心事吗? B: 嗯, 奶奶很乐观, 很少~~~~~。
3	3-1	逞强	A: 这都是谁的错? B: 这都是他的错, 没事~~~~~呢。
	3-2		A: 尽力而为吧。 B: 我不知道, 是不是太~~~~~了。
4	4-1	担心	A: 毕业这么久了, 要快点找工作。 B: 赚你的钱吧, 用不着替我~~~~~。
	4-2		A: 你在担心什么吗? B: 是的, 至于~~~~~, 我就不说了。
5	5-1	道歉	A: 对不起! 对不起! B: 别~~~~~了, 快把我扶起来。
	5-2		A: 我实在太难受了, 特意来向您道歉的。 B: ~~~~~? 说出来让我听听。
6	6-1	放心	A: 就他那样。我~~~~~啊! B: 不放心, 还能天天跟着?
	6-2		A: 你一个人, 我不放心。 B: 你不~~~~~呀!
7	7-1	害怕	A: 我害怕! B: 大白天的, ~~~~~呀! 真是的!
	7-2		A: 你到底~~~~~? B: 我怕他会找上门来。
8	8-1	害羞	A: 做这个工作你不害羞吗? B: 做了这么久了, 不~~~~~了。
	8-2		A: 你是在~~~~~吗? B: 没有, 头一回, 感到有点儿不习惯。

9	9-1	起哄	A: 人家吵架, 你不劝阻, 还在后面_____呢。
	9-2		B: 没有啊。 A: 你别跟着起哄啊! B: 起哄? 我没_____啊。
10	10-1	伤心	A: 看不到妈妈, 我会伤心的。
	10-2		B: 傻丫头, _____啊。 A: 我真的好伤心啊! B: _____? 快跟我说说。
11	11-1	生气	A: 你怎么还生气呢?
	11-2		B: 我的心都死了, _____呀。 A: 你不生气了吗? B: _____? 我不知道你指的是什么。
12	12-1	着急	A: 咱们快回去吧。
	12-2		B: _____时间还早着呢。 A: 你怎么能这么说呢? B: 我又没说是你, 你_____?

〈그림 2〉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합사 사용 양상에서 ‘帮忙’, ‘操心’, ‘逞强’, ‘道歉’, ‘起哄’, ‘生气’, ‘着急’ 등 7개 이합사는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X什么Y’ 문장을 선택하는 수가 ‘XY什么’



〈그림 2〉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합사 사용 양상 그래프

보다 더 많고, 반대로 ‘担心’, ‘放心’, ‘害怕’, ‘害羞’, ‘伤心’ 등 5개 이합사는 ‘XY什么’ 문장을 선택하는 수가 더 많다. 이는 12개 이합사에 대한 말뭉치 예문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양상과 거의 일치했으며 그 구체적인 수치를 <표 5>를 통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표 5> 한국인과 중국인의 이합사 사용 양상

순	이합사	중국인				한국인				
		X什么Y	XY什么	무응답	합	X什么Y	XY什么	무응답	합	
1	帮忙	수	172	9	1	182	113	31	4	148
		%	94.5	4.9	0.5	100.0	62.1	17.0	2.2	81.3
2	操心	수	93	88	1	182	82	61	5	148
		%	51.1	48.4	0.5	100.0	45.1	33.5	2.7	81.3
3	逞强	수	114	66	2	182	70	74	4	148
		%	62.6	36.3	1.1	100.0	38.5	40.7	2.2	81.3
4	担心	수	41	138	3	182	52	92	4	148
		%	22.5	75.8	1.6	100.0	28.6	50.5	2.2	81.3
5	道歉	수	152	27	3	182	82	62	4	148
		%	83.5	14.8	1.6	100.0	45.1	34.1	2.2	81.3
6	放心	수	61	121	0	182	69	74	5	148
		%	33.5	66.5	0.0	100.0	37.9	40.7	2.7	81.3
7	害怕	수	27	155	0	182	45	100	3	148
		%	14.8	85.2	0.0	100.0	24.7	54.9	1.6	81.3
8	害羞	수	63	118	1	182	60	82	6	148
		%	34.6	64.8	0.5	100.0	33.0	45.1	3.3	81.3
9	起哄	수	144	36	2	182	85	58	5	148
		%	79.1	19.8	1.1	100.0	46.7	31.9	2.7	81.3
10	伤心	수	65	113	4	182	58	86	4	148
		%	35.7	62.1	2.2	100.0	31.9	47.3	2.2	81.3
11	生气	수	148	32	2	182	84	60	4	148
		%	81.3	17.6	1.1	100.0	46.2	33.0	2.2	81.3
12	着急	수	150	30	2	182	85	60	3	148
		%	82.4	16.5	1.1	100.0	46.7	33.0	1.6	81.3

<표 5>에 의하면, ‘帮忙’, ‘操心’, ‘逞强’, ‘道歉’, ‘起哄’, ‘生气’, ‘着急’ 등 7개 이합사에 대해 중국인과 한국인은 ‘X什么Y’ 대화문을 정답으로 선택

하는 문장 수가 ‘XY什么’ 보다 훨씬 많으며, 반면에 ‘担心’, ‘放心’, ‘害怕’, ‘害羞’, ‘伤心’ 등 5개 이합사의 ‘XY什么’ 대화문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수가 ‘X什么Y’보다 더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逞强’을 제외하면 다른 11개의 이합사의 ‘X什么Y’와 ‘X什么Y’ 형식의 사용 양상은 말뭉치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sup>5)</sup> 그러므로 연구 대상인 12개 이합사의 ‘X什么Y’와 ‘X什么Y’에 대해 통사, 담화, 화용 등의 측면을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 IV. 논의

앞에서 BCC 말뭉치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X什么Y’와 ‘XY什么’가 있는 문장의 통사적 특징, 담화적 특징,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 1. 통사적 특징

‘X什么Y’와 ‘XY什么’가 있는 문장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두 유형 모두 의문문과 평서문에 두루 사용되는데 특히 의문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X什么Y’는 감탄문에도 두루 사용되는 것과 달리 ‘XY什么’는 특정 단어인 担心과 害怕 이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X什么Y’가 내포되고 있는 문장 중에 감탄문도 약 10% 차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XY什么’가 내포되고 있는 문장 중에 특정 단어 ‘担心’(19개), ‘害怕’(6개) 이외에 감탄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X什么Y’와 ‘XY什么’ 왜 통사적으로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5) 여기서 한국인이 X什么Y(38.5%)와 XY什么(40.7%)를 선택한 비율이 비슷한데, 이것은 逞强이 HSK 어휘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로, 단어가 생소해서 나온 결과인 것으로 짐작한다.

이 보이고 있는지 담화와 화용적 특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표 6〉 참조).

〈표 6〉 X什么Y & XY什么的 통사적 분포

순	이합사	X什么Y				XY什么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합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합	
1	帮忙	수	84	137	7	228	1	3	1	5
		%	36.8	60.1	3.1	100.0	20.0	60.0	20.0	100.0
2	操心	수	38	46	14	98	5	3	1	9
		%	38.8	46.9	14.3	100.0	55.6	33.3	11.1	100.0
3	逞强	수	11	23	3	37	6	1	0	7
		%	29.7	62.2	8.1	100.0	85.7	14.3	0.0	100.0
4	担心	수	23	33	4	60	271	415	19	705
		%	38.3	55.0	6.7	100.0	38.4	58.9	2.7	100.0
5	道歉	수	15	26	8	49	3	5	0	8
		%	30.6	53.1	16.3	100.0	37.5	62.5	0	100
6	放心	수	3	1	0	4	3	20	0	23
		%	75.0	25.0	0.0	100.0	13.0	87.0	0.0	100.0
7	害怕	수	1	3	0	4	147	255	6	408
		%	25.0	75.0	0.0	100.0	36	62.5	1.5	100.0
8	害羞	수	2	8	3	13	5	10	1	16
		%	15.4	61.5	23.1	100.0	31.3	62.5	6.3	100.0
9	起哄	수	11	11	8	30	1	1	1	3
		%	36.7	36.7	26.7	100.0	33.3	33.3	33.3	100.0
10	伤心	수	0	6	1	7	8	22	0	30
		%	0.0	85.7	14.3	100.0	26.7	73.3	0.0	100.0
11	生气	수	42	127	12	181	8	13	0	21
		%	23.2	70.2	6.6	100.0	38.1	61.9	0.0	100.0
12	着急	수	27	43	14	84	9	17	0	26
		%	32.1	51.2	16.7	100.0	34.6	65.4	0.0	100.0

둘째, ‘X什么Y’와 ‘XY什么’는 모두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부사 사용 빈도를 보면 평서문의 경우 ‘不’, ‘不必’, ‘再’, ‘在’ 등 부정부사, 빈도부사. 시간부사가 많이 사용되었고, 의문문과 감탄문의 경우 还, 到底, 究竟, 瞎 등 빈도부사와 어기부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 부사

중 특히 일부 특정한 부사가 자주 출현했는데 ‘还’, ‘到底’, ‘瞎’가 바로 그것이다.

- (3) 要是男孩子的话做父母还操什么心呢？
- (4) 可是，现在我富了，他们还担心什么呢？
- (5) 你可不可以准确一点说出你到底在害怕什么？
- (6) 你们又没见过，瞎起什么哄？

예(3)과 예(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도부사 还가 ‘X什么Y’와 ‘XY什么’ 앞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뒤에 종종 어기조사 呢가 동반되어 더 강한 부정을 나타낸다. 예(5)의 ‘到底在害怕什么’처럼 到底는 주로 ‘X什么Y’ 형식 앞에 시간부사 ‘在’와 같이 사용되어 있고 의문을 나타낸다. 예(6)의 ‘瞎起什么哄’과 같이 ‘瞎’는 주로 ‘X什么Y’ 형식 앞에 사용되어 있고 특히 ‘操什么心’과 ‘起什么哄’ 앞에 특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었다. 이는 ‘瞎’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기부사이므로 ‘X什么Y’ 형식 앞에 사용되면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감정을 더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로 ‘X什么Y’가 ‘XY什么’보다 부사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X什么Y’가 ‘XY什么’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X什么Y’와 ‘XY什么’는 대부분 문장 끝에 사용되어 있으므로 뒤에 다양한 어기사가 출현했다.

- (7) 我一个人真的很好嘛！你们操什么心呢？
- (8) 我妈妈都不着急，他们着什么急啊。
- (9) 他不过是实话实说罢了，她生什么气呀！
- (10) 他们是在害怕什么吗？

예(7)에서 예(10)까지 ‘X什么Y’와 ‘XY什么’ 뒤에 ‘呢’, ‘啊’, ‘呀’, ‘吗’ 등 어기사와 같이 사용되어 반어적인 어투, 부정적인 의미, 불만스러운 감

정, 의문을 나타내는 어투 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기사는 ‘XY什么’ 뒤보다 ‘X什么Y’의 뒤에 더 많이 출현했다.

넷째,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대부분은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술어 역할을 하는데, 일부는 내포문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예(13)와 예(14)를 보면, 전체 문장의 술어는 각각 ‘明白’와 ‘知道’이고,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你到底在担心什么’와 ‘我害怕什么’인데, 그 목적어는 또 주술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주술문에서 ‘担心什么’와 ‘害怕什么’는 술어 역할을 한다.

- (11) 我们能**帮什么忙**?
- (12) 月底发薪水, **担心什么**。
- (13) 我不明白你到底在**担什么心**。
- (14) 我不知道我**害怕什么**。

예(11)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이고,<sup>6)</sup> 예(12)는 ‘월말에 월급이 나오는데 뭘 걱정하고 그래.(걱정할 필요 없어)’라는 의미인데, 이 두 예문 중의 ‘帮什么忙’와 ‘担心什么’과 같이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문장에서 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12)는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이고, 예(13)은 ‘나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인데, ‘你到底在担什么心’과 ‘我害怕什么’는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내포문 안에서 ‘担什么心’과 ‘害怕什么’는 술어 역할을 한다.

## 2. 담화적 특징

王海峰(2003)은 이합사 ‘A什么B’ 구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6) 언어환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나타내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단지 ‘什么’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전체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구조의 전체적인 의미를 담화에서 벗어나 한 문장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X什么Y’ 구조가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5) “但是，我有点担心。”“你担什么心？”“明明知道我来，她还出去了。”

(16) 不是没说，而是你不记得了，而且不知道你在生什么气。

분명한 것은 예(15)중의 ‘担什么心’은 의문을 나타내는 것이고, 부정과 힐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경시, 불만, 멸시 따위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担什么心’ 뒤의 답은 이런 의문의 어기를 나타냈다. 예(16) 중의 ‘生什么气’는 ‘不知道’의 목적어 일부가 되어 진술로 쓰여 있다. 그렇다면 ‘X什么Y’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X什么Y’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가? 같은 구조가 의문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고,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진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면, 이 구조의 부정적인 의미를 언급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사용 조건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예(15)과 예(16)을 통해 ‘X什么Y’ 구조 전체의 의미는 어떤 성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담화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X什么Y’와 ‘XY什么’ 구조의 담화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X什么Y’와 ‘XY什么’는 모두 앞뒤 문맥과 연관이 되어 있다. ‘X什么Y’와 ‘XY什么’ 중의 ‘XY’는 어떤 것은 윗글에서 이미 출현하고, 어떤 것은 출현하지 않지만 ‘XY’가 서술한 상태, 행위나 사건이 앞 문장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17) 胡琦老实的说：“我在替你担心。”“你替我担什么心？”“我……我有一种不太好的感觉……”

(18) “海棠，你不生气了吗？”他一愣。“生气什么？”“我把你拖来这里的事

啊。”

- (19) 婉琳变了色：“我过得好好的日子，要你**伤心**些什么？你人长得越大，连话都不会说了！讲话总得讨个吉利，**伤什么心**呢？”

예(17), 예(18), 예(19)의 XY인 ‘担心’, ‘生气’, ‘伤心’는 윗글에서 이미 출현하였는데, 뒤에서 ‘担什么心’과 ‘生气什么’는 앞의 ‘担心’과 ‘生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이어서 뒤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어진다. 예(19)는 윗글에서 XY인 ‘伤心’도 출현하였지만, 예(17)과 예(18)처럼 뒤에서 ‘伤心’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대답이 필요 없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X什么Y’와 ‘XY什么’ 중의 ‘XY’는 이렇게 앞에서 먼저 나오고 이어서 ‘X什么Y’와 ‘XY什么’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보이지만, 뒤에 나온 ‘X什么Y’와 ‘XY什么’가 대답이 필요한 질문인지, 아니면 답이 필요 없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인지를 구체적인 담화에서 살펴봐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둘째, ‘X什么Y’와 ‘XY什么’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郭圣林(2004:118)도 이 4가지 조건을 언급했다. 조건1, 행위A가 발생했고, 화자는 행위A가 ‘XY’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조건2, 화자가 발화할 때 분명히 참으로 여긴 명제인 가설B가 존재하고, 이 가설B가 행위A와 논리적 관계가 갖는다. 조건3, B가 참이면 A는 이리에 맞지 않으며 옳지 않다는 것이다. 조건4, B의 부정 명제가 참일 경우만이 A가 비로소 이리에 맞는 것이다.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의 의미, 즉 화자가 이 형식을 사용하는 목적 혹은 청자가 이 형식을 들은 후의 이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B가 참이라는 우성(優性)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A가 이리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이다’라는 함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20) “赌就赌，”杨明远说：“假如何慕天有诚意，为什么不先结婚呢？要弄得这样风风雨雨的，到处都是他们的桃色新闻。”“赌十包五香豆腐干，如

何?”小罗说：“没有先行婚礼，或者是有苦衷呢！”“苦衷！会有什么苦衷……”“算了算了，”王孝城插进来说：“为别人的事争得面红耳赤，何苦？结婚也好，不结婚也好，是别人自己的事，你们**操心**什么心呢？走！我们到邱胡子茶馆里去坐坐吧，跟他赊账。”“我不去了，”小罗说，向寝室外面走：“我赎毛衣去！”“那么，我们去！”王孝城对杨明远说。

- (21) 无心浅笑回答：“无心心中有事一直静不下来，就到花园走走散心，想不到殿下会来看无心，无心好高兴。”“不是说好一切都有我吗，你只要留在花影宫里等我的好消息就可以了，你还**担心**什么呢？”武麒看无心愁上眉梢，有些心疼地搂紧她。

예(20)에서는 조건1, 샤오뤄와 양밍위안은 허무텐의 혼사로 인해 서로 다투는 것, 이런 행위는 ‘操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2, 샤오뤄와 양밍위안 두 사람 모두 허무텐의 혼사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마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건3, 만약에 두 사람 모두 혼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4, 두 사람의 ‘마음 쓰임’은 오직 관계있는 사람일 경우에만 옳은 것이다. 따라서 조건1과 조건4로 두 사람은 혼사에 ‘마음을 쓰’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操心什么心’를 써서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조건2과 조건3이 있으므로 이 의문문의 표상적인 의미는 ‘두 사람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함축적인 의미는 ‘두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21)에서는 조건1, 위신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화원에 가서 기분전환을 좀 한다는 것, 이런 행위는 ‘担心’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2, 모든 것을 우치가 다 알아서 한다. 조건3, 만약에 우치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면,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4, 위신의 ‘걱정’은 오직 우치가 없을 때 비로소 옳은 것이다. 따라서 조건1과 조건4로 위신이 ‘걱정’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担心什么’를 써서 반어적으로 표현한다. 조건2와 조건3이 있으므로 이 의문문의 표상적인 의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함축적인 의미는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다. ‘X什么Y’와 ‘XY 什么’는 담화에서는 위에 서술한 4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만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X什么Y’ 중의 ‘什么’는 주로 초점 성분이 되어,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대인 메타담화로 작용한다. 徐杰·李英哲(1993)는 의문사가 어휘 데이터베이스(vocabulary database)에서 의문[+Q]과 초점[+F]이 두 가지 자질을 갖는데,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초점 자질을 의문사(예를 들어 ‘谁’)나 의문사가 포함된 문법단위(예를 들어 ‘什么地方’)에 부여하게 되는데, 의문문 속의 의문사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문장의 강한 핵심 초점이 된다. 흔히 의문사가 ‘부정(不定) 지칭(任指)의 용법으로 쓰일 때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강조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Q][+F] 두 가지 자질 표기 중 ‘의문의 자질’이 비의문문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작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초점 자질’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 (22) 郑华说, 厂里这么多人不着急, 你**着什么急**? 吴丰说, 没办法, 我就这么个性子。
- (23) “塞阳你……你不**生我的气**了?” 萨放豪定定的看着她, 主动将彼此的称呼提升到最亲昵的程度。“还**生什么气**啊! 你都教我给刺了一剑, 我可没那么小气!”

의사소통은 동적인 과정이고, 하나의 언어 성분이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의사소통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그 역할의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있는 성분일수록 그 역할이 크다. ‘X什么Y’는 종종 문미에 출현하거나 단독으로 문장을 이룬다. 예(22)과 예(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XY’는 흔히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를 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을 늘려야 하므로 필요한 성분을 넣어야 한다. ‘X什么Y’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그 중의 ‘什么’이고, 초점 자질이 두드러지므로, XY를 빌려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뚜렷한 보여주는 강조 기능의 역할을 한다. 예(22)와 예(23)의 ‘着什么急’과 ‘生什么气’ 중의 ‘着急’과 ‘生气’는 앞에서 이미 출현하였고 윗글과 일관된 관계를 갖으므로

담화의 메타담화와 조응하였다. ‘什么’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는 성분으로 대인 메타담화와 일치한다. 따라서 ‘X什么Y’에서 ‘什么’의 기능은 청자를 대하는 발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대인 메타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22)와 예(23)의 ‘着什么急’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화자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토로하였고, ‘生什么气’는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냈다. ‘XY什么’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 부정의 정도는 ‘X什么Y’만큼 강하지 않다.

### 3. 화용적 특징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은 흔히 사용하는 구어 표현 방식으로, 구어체 자료에 자주 출현하며 공식 문체에서는 보기 드물다. BCC 말뭉치 자료 중 법률 문헌, 규정 제도, 정부 업무보고와 같은 서면 문체 자료에서는 이런 형식의 용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X什么Y’와 ‘XY什么’의 화용적 특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첫째, 화자의 주관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Lyons(1977:739)에 의하면 주관성(subjectivity)은 언어의 특징으로 말속에 다소 화자 ‘자아’를 표현하는 성분을 가리킨다. 즉 화자는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에 대한 자신의 견해, 태도,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말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은 화자가 어떤 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한 의문, 주관적인 부정적 인식, 주관적인 평가 등을 표현하여 감정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감정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 (24) 海澄拉起依芙两只手臂，放在他自己的肩膀上，“你到底要做什么？”“向你的三个好朋友，还有雅莉道歉！”“为什么？又不关你的事！你根本没有做错，道什么歉？”
- (25) “你担心什么，我那么大个人了，又不是小孩子。”苏铃轻轻离开他的怀抱，关上门，到厨房拿罐啤酒给他。
- (26) 戴嘉被说得撇起了嘴：“好了好了，我明天退了不就得了。你又愁那张支票吧？担什么心啊，早晚找到一个亲戚朋友的，国外有公司，转出去就没事了。”

예(24)의 ‘道什么歉’를 보면, 화자인 이푸의 ‘사과(道歉)’에 대한 주관적 태도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당신은 잘못하게 전혀 없는데(又不关你的事! 你根本没有做错)’는 이푸가 하이딩이 사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태도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화자의 주관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예(25)에 ‘担心什么’는 또 화자인 쭈링의 ‘걱정(担心)’에 대한 태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担心什么’ 뒤의 ‘나는 엄연히 다 큰 어른이고, 어린아이도 아닌데(我那么大个人了, 又不是小孩子。)’는 쭈링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입장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예(26)에 ‘担什么心’도 화자가 ‘수표’에 대한 태도는 ‘걱정하지 않다(不担心)’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사실이 이러하든 아니든 화자는 주관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X什么Y’를 사용하면서 주관성을 강화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25)와 예(26)에 각각 ‘担心什么’와 ‘担什么心’을 써서 화자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냈는데, 감정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다. 예(25)에 ‘担心什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외에 불만이나 비난 등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준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말을 끝낸 후에 부엌에 가서 걱정해준 그에게 맥주 한 캔을 가져다주는 걸로 엇볼 수가 있었다. 반면 예(26)에 ‘担什么心’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외에 불만과 억울한 감정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와 ‘됐다, 됐어, 내가 내일 (이 수표를) 물리면 되잖아’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매우 억울하고 불만 가득한 감정도 같이 토로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이에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은 모두 화자의 주관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X什么Y’는 ‘XY什么’보다 더 강력한 주관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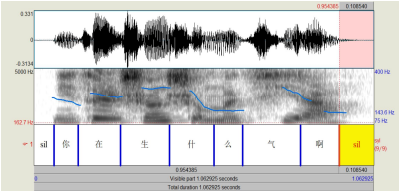
둘째, ‘X什么Y’와 ‘XY什么’는 평서문에서의 화용은 다르다. ‘X什么Y’는 평서문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XY什么’는 평서문에서는 주로 사실을 진술하는 데 쓰인다.

- (27) 医生说 he 没事了, 他也决定正式退休, 还**担什么心**。
- (28) 没关系啦, **道什么歉**。
- (29) 我不明白你到底在**担什么心**。
- (30) 我分明很清楚自己**害怕什么**。
- (31) 奶奶比较乐观的享乐派, 很少**操心什么**。
- (32) 有我在还**担心什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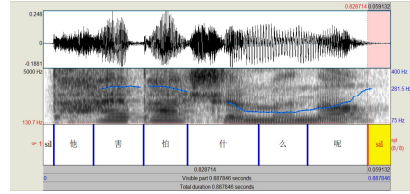
‘X什么Y’는 평서문에서는 주로 예(27), (28)의 ‘担什么心’와 ‘道什么歉’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가끔은 예(28)의 ‘担什么心’와 같이 사실을 진술하는데도 쓰인다. 반면에 XY什么은 평서문에서는 주로 예(30), (31)과 같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쓰이는데, 간혹 예(32)와 같이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주의할 것은 예(27)의 ‘担什么心’과 예(32)의 ‘担心什么’는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냈는데, 예(32)의 ‘担心什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외에 다른 감정이 없지만, 예(27)의 ‘担什么心’은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다는 즉 ‘걱정도 팔자다’라는 놀림조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는 그가 별일 없다고 말했고, 그도 정년퇴직하기로 했는데’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X什么Y’와 ‘XY什么’는 화용에 있어서 평서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다 사용할 수 있지만, X什么Y는 ‘XY什么’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X什么Y’와 ‘XY什么’는 의문, 진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등과 같은 화용에 따라 말할 때의 강세에도 차이가 보인다. 饶勤(1997), 丁勇(2002)도 ‘X什么Y’의 화용에 따른 강세 차이에 대해 언급했다. 의문을 나타낼 때는 강세가 ‘X什么Y’와 ‘XY什么’의 ‘什么’에 있고,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X什么Y’ 같은 경우 강세가 ‘X’에 있고, ‘XY什么’ 같은 경우 강세가 ‘XY’에 있다. 그리고 진술을 나타낼 때는 ‘X什么Y’와 ‘XY什么’과 똑같이 아무런 강세도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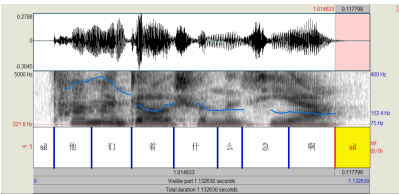
- (33) 直美, 你在生什么气啊?是因为我吗?  
 (34) 我临别时, 他忽然说:“空荡荡, 有些害怕!”他害怕什么呢?我想。  
 (35) 我妈妈都不着急, 他们着什么急啊。  
 (36) “万一又发病了怎么办?”“有我在, 还担心什么。”  
 (37) 张顾萍阴沉地说道:“那你也不必为我操心什么了。”  
 (38) 奶奶比较乐观的享乐派, 很少操心什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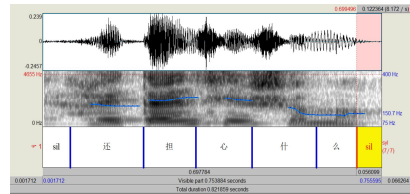
〈그림 3〉 예(33) 스펙트로그램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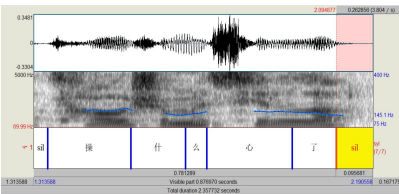
〈그림 4〉 예(34)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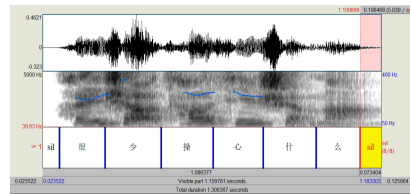
〈그림 5〉 예(35) 스펙트로그램



〈그림 6〉 예(36) 스펙트로그램



〈그림 7〉 예(37) 스펙트로그램



〈그림 8〉 예(38) 스펙트로그램

예(33)과 예(34)의 ‘生什么气’와 ‘害怕什么’는 모두 의문을 나타내므로 강세는 ‘什么’에 있고, 예(35)와 예(36)의 ‘着什么急’와 ‘担心什么’는 모두

7)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은 소리를 시각화한 것을 말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세는 각각 ‘着’, ‘担心’에 있으며, 예(37)과 예(38)의 ‘操心什么’와 ‘操心什么’는 모두 진술을 나타내므로 강세가 없고 어조가 부드럽다. 이는 <그림 3>~<그림 8>의 스펙트로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화용에 따라 ‘X什么Y’와 ‘XY什么’의 강세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일부 이합사 중 목적어 什么이 있을 때 전치사구의 형식을 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음절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형식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이합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통사적 특징으로는 첫째, ‘X什么Y’와 ‘XY什么’가 의문문과 평서문에 두루 사용되는데 특히 의문문에 더 많이 사용된다. 둘째, 부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X什么Y’와 ‘XY什么’는 대부분 문장 끝에 사용되어 있으므로 뒤에 다양한 어기사가 출현했다. 이런 어기사들은 ‘XY什么’ 뒤보다 ‘X什么Y’ 뒤에 더 많이 출현했다. 넷째,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의 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며, 그 목적어 안에서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담화적 특징으로는 첫째, X什么Y와 XY什么는 모두 앞뒤 문맥과 연관이 되어 있다. 둘째, X什么Y와 XY什么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려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며 담화에서는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만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X什么Y 중의 ‘什么’는 주로 초점 성분으로 되어,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대인 메타담화로 작용한다. 그러나 XY什么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지만, 그 부정의 정도는 X什么Y만큼 강하지 않다.

화용적 특징으로는 첫째,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은 모두 화자의 주관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 중 X什么Y가 XY什么보다 더 강력한 주

관성을 드러낼 수 있다. 둘째, ‘X什么Y’와 ‘XY什么’이 평서문일 때, ‘X什么Y’가 ‘XY什么’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셋째, ‘X什么Y’와 ‘XY什么’는 의문, 진술,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등과 같은 화용에 따라 말할 때의 강세에도 차이가 보인다. 의문을 나타낼 때는 강세가 ‘X什么Y’와 ‘XY什么’의 ‘什么’에 있고,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X什么Y’ 같은 경우 강세가 ‘X’에 있고, ‘XY什么’ 같은 경우 강세가 ‘XY’에 있다. 그리고 진술일 때 ‘X什么Y’와 ‘XY什么’ 모두 강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합사가 목적어를 가질 때 이합사 뒤에 목적어가 위치하는 형식, 즉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을 동시에 갖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걸로 시작하여 대량의 코퍼스를 정리 분석하며,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의 대화문을 만들어 중국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하여 그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나타냈으며, 실제 언어환경에서 ‘X什么Y’와 ‘XY什么’ 형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냈고, 이를 중국어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担心’, ‘放心’, ‘害怕’, ‘害羞’, ‘伤心’에 대한 말뭉치 전수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로는 ‘X什么Y’ 문장보다 ‘XY什么’ 문장 수가 더 많고 선택하는 수가 더 많았다. 이는 5개의 이합사가 전형적인 이합사에서 타동사로 어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위에 언급한 5개의 단어를 비롯한 어법화 과정에 있는 이합사들의 어법화 과정과 타동사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다.

### < 참고문헌 >

- 曹保平·冯桂华, <“离合词”的构成及离合规律>, 《广播电视大学学报》 第4期, 2003.

- 《现代汉语常用词表》课题组, 《现代汉语常用词表(草案)》, 商务印书馆, 2008.
- 崔玲玲, 〈近十年离合词研究综述〉, 《汉字文化》 第11期, 2019.
- 丁勇, 〈汉语动宾型离合词的语用分析〉, 《语言研究》 第2期, 2002.
- 段业辉, 〈论离合词〉, 《南京师范大学学报》 第2期, 1994.
- 范晓, 〈怎样区别现代汉语的词同短语〉, 《东岳论丛》 第4期, 1981.
- 范妍南, 〈对外汉语教学中的动宾式离合词带宾语问题〉, 《语言教学与研究》 第5期, 2007.
- 付士勇, 〈论离合词〉, 《黔东南民族师专学报》 第1期, 2001.
- 高永安, 《边听边记HSK离合词》,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8.
- 郭圣林, 《现代汉语若干句式的语篇考察》, 复旦大学博士论文, 2004.
- 韩明, 〈论对外汉语教学中的离合词〉, 《温州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期, 2003.
- 华玉山, 〈关于离合词的语用问题〉, 《语文学刊》 第6期, 2004.
- 柯彼德, 〈汉语作为外语教学法的语法体系急需修改的要点〉《第三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集》,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0.
- 孔子学院总部·国家汉办,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4.
- 李大忠, 《外国人学汉语语法偏误分析》,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6.
- 李春玲, 〈离合词研究综述〉, 《沈阳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期, 2008.
- 李丽丽·李碧银, 〈留学生汉语离合词习得偏误调查研究——越南留学生的视角〉, 《重庆工商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5期, 2012.
- 李清华, 〈论离合词的特点和用法〉, 《语言文字与研究》 第3期, 1983.
- 林汉达, 〈动词连写问题〉, 《中国语文》 第10期, 1953.
- 刘春梅, 〈通过教材编写改善对外汉语的离合词教学〉, 《云南师范大学学报》 第6期, 2004.
- 刘萍, 〈离合词研究综述〉, 《柳州师专学报》 第20卷 第1期, 2012.

- 刘顺, 〈论现代汉语离合词〉, 《齐齐哈尔大学学报》第5期, 1999.
- 刘泽先, 〈用连写来规定词〉, 《中国语文》第3期, 1953.
- 赵淑华·张宝林, 《离合词的确定及对性质的再认识》,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6.
- 兰海洋, 〈中高级阶段泰国学生学习汉语离合词偏误分析〉, 《四川教育学院学报》第7期, 2011.
- 陆志韦, 《汉语的构词法》, 科学出版社, 1957.
- 吕叔湘, 《汉语语法分析问题》, 商务印书馆, 1979.
- 吕文华, 《离合词的教学对外汉语教学语法探索》, 语文出版社, 1994.
- 吕文华, 〈短语词的划分在对外汉语教学中的意义〉, 《语言教学与研究》第3期, 1999.
- 朴美淑, 《对韩汉语教学离合词研究》, 山东大学博士学位论文, 2005.
- 饶勤, 〈离合词的结构特点和语用分析〉, 《汉语学习》第2期, 1997.
- 任雪梅, 〈外国留学生汉语离合词偏误分析〉, 《汉外语言对比与偏误分析论文集》, 北京大学出版社, 1999.
- 史有为, 《划分词的普遍性原则和系统性原则语法研究和探索》, 北京大学出版社, 1983.
- 孙书姿, 《韩国留学生习得汉语双音节VO型离合词的言语加工策略》, 北京大学硕士论文, 2004.
- 王海峰·李生·赵铁军, 〈汉英机器翻译中汉语离合词的处理策略〉, 《情报学报》第8期, 1999.
- 王海峰, 《现代汉语离合词学习词典》,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3.
- 王力, 《中国现代语法》, 上海商务印书馆, 1944.
- 王力, 《汉语语法纲要》, 上海教育出版社, 1982.
- 王瑞敏, 〈留学生汉语离合词使用偏误的分析〉, 《语言文字应用》, 第3期, 2005.
- 王素梅, 〈论双音节离合词的结构、扩展及用法〉, 《沈阳师范学院学报》第4期, 1999.

- 王亚丽,〈略论动宾离合词“V什么O”和“VO什么”的异同——以“担心”为例〉,《汉字文化》第10期,2018.
- 王用源,《废“离合词”兴“组合词”》,天津大学硕士学位论文,2004.
- 肖奚强,〈韩国学生汉语语法偏误分析〉,《世界汉语教学》第2期,2000.
- 谢耀基,〈词和短语的离合问题〉,《烟台大学学报》第2期,2001.
- 徐杰·李英哲,〈焦点和两个非线性语法范畴:“否定”“疑问”〉,《中国语文》第2期.
- 杨庆惠,《现代汉语离合词用法词典》,北京师范大学出版社,1995.
- 杨园林,〈动宾式离合词离析形式的结构特点及语义、功能探析——从对外汉语教学的视角来看〉,《吉林省教育学院学报》第4期,2018.
- 杨峥琳,〈中级水平韩国学生习得汉语离合词情况分析〉,《昆明理工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期,2006.
- 于晶晶,〈离合词探析〉,《语言文字》第12期,2005.
- 俞士汶·朱学峰,〈面向自然语言处理的机器词典的研制〉,《辞书研究》第2期,2019.
- 张宝敏,〈谈现代汉语中的“离合词”〉,《语文知识丛刊》第2期,1981.
- 张斌,《汉语语法学》,上海教育出版社,1998.
- 张燕,〈离合词研究现状综述——以对外汉语教学与中文信息处理为例〉,《现代语文》第12期,2014.
- 赵金铭,〈能扩展的“动+名”格式的讨论〉,《语言教学与研究》第2期,1984.
- 中国教育部中外语言交流中心,《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2021.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7版)》,2016.
- 周上之,〈离合词是不是词〉,《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第4期,2001.
- 周上之,《汉语常用离合词用法词典》,北京语言大学出版社,2011.
- 朱德熙,《语法讲义》,商务印书馆,2011.
- 朱坤林,《〈现代汉语词典〉中的离合词研究》,《吉林省教育学院学报》第2期,2006.
- John Lyons,《Semantics: Volume2》,Cambridge University Press,1977.

## <Abstract>

It was confirmed that some of the Separable words wer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even though the form of a prepositional phrase was not taken when the object 什么 was present. Such a separable word has sever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As for Syntax Features, first, ‘X什么Y’ and ‘XY什么’ are used both in questionnaires and in plaintext, especially in questionnaires. Second, it was often used with adverbs. Third, ‘X什么Y’ and ‘XY什么’ are mostly used at the end of the sentence, so various fishing articles appeared later. These articles appeared more after ‘X什么Y’ than after ‘XY什么’. Fourth, the forms ‘X什么Y’ and ‘XY什么’ serve as predicates for the entire sentence, some of which serve as objects, and also as predicates within the object.

As for Discourse Features, first, ‘X什么Y’ and ‘XY什么’ are both related to the context before and after. Second, ‘X什么Y’ and ‘XY什么’ must have four conditions to show negative meaning, and in discourse, all four conditions must be met to show negative meaning. Third, ‘什么’ in ‘X什么Y’ is mainly a focal component, and acts as an interpersonal meta-talk in which the speaker shows an attitude toward the listener. However, although ‘XY什么’ is also used in a negative sense, the degree of negation is not as strong as ‘X什么Y’.

As for Pragmatic Features, First, both the ‘X什么Y’ and ‘XY什么’ formats could strengthen the subjectivity of the speaker. Among them, ‘X什么Y’ can reveal stronger subjectivity than ‘XY什么’. Second, When ‘X什么Y’ and ‘XY什么’ are written in plaintext, ‘X什么Y’ can reveal richer emotions than ‘XY什么’. Third, ‘X什么Y’ and ‘XY什么’ differ in

strength when speaking according to utility such as questions, statements, and negative meanings. When expressing doubt, the strength lies in the ‘什么’ of ‘X什么Y’ and ‘XY什么’, when expressing dissatisfaction or negative meaning, in the case of ‘X什么Y’, the strength is in ‘X’, and in the case of ‘XY什么’, the strength is in ‘XY’. And when representing statements, neither ‘X什么Y’ nor ‘XY什么’ was noticeable.

Key Words : 이합사(Separable words), X什么Y, XY什么, 통사적  
특징(Syntax Features), 담화적 특징(Discourse Features),  
화용적 특징(Pragmatic Features)